역량강화 개인결과물

안녕하세요! 청년이 그린 그린뉴딜, 에너지전환 청년 프런티어 2기 단원 '석민진'입니다.

지난 2월 2일 ~ 2월 5일 3박 4일의 기간 동안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 지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직접 발로 뛰며 팩트 체크를 할 수 있었던 "팀별 현장 답사"를 다녀왔어요! 팀별 현장답사는 제가 프런티어 활동을 하면서 가장 기대했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갑갑한 화상 회의에서 벗어나 팀원들을 직접 만나고 그동안 인터넷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에너지전환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좋았던 기억을 오래 간직하기 위해 그 여정을 간략하게 글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2월 2일, 프런티어 여정의 첫 걸음 "광주"

2월 2일 새벽부터 저는 바삐 움직였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 창원에서 광주로 향하는 고속버스가 하루에 단 세대 밖에 있지 않아서 (ㅠㅠ) 저는 창원에서 부산으로 새벽에 이동한 후 부산에서 광주로 향하는 고속 버스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광주에 도착해서 팀원들을 만나니 피곤함이 싹 사라 지더라구요~!

이 반가움도 잠시, 1시에 예정되어 있던 "광주환경운동연합"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해 점심을 먹으면서 막바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먼저 시민 협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크게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역할과 도심에서 개인 주도형 태양광을 설치하기 힘들다는 한계를 극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인터뷰했던 김종필 사무국장님은 태양광 가짜뉴스 관련하여 골머리를 앓고 계셨는데요 ㅠㅠ 비닐하우스가 모여 있는 사진과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사진을 비교해 가며 미관에 대한 오해를 명쾌하게 해소해 주셨지요!

두번째로 방문한 곳은 탑 인프라 광주 본사였어요!

인터뷰 장소에 도착하자 마자 마치 면접을 보는 듯한 무거운 분위기에 놀랐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그 긴장감은 말끔히 사라 졌답니다.

탑인프라는 태양광 시공업을 하고 있어요. 시공업체 입장에서 정부의 일관적이지 않은 정책과 불안정한 한전과의 계통연계가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준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시공업체도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기금을 기탁하거나 동네 사업을 대신 해결해 주는 보조업무도 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광주의 마지막 여정은 바로 에너지 공단 광주 전남 본부였습니다.

저희 주제 특성상 공공기관을 방문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에너지 공단 방문이 꽤 행복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태양광 배임행위는 쉽게 없어 지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정보 부족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된다 하더라도 어떤 산업 속에서나 사기 피해는 늘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히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미리 정의했던 문제가 중요한 문제이지만 청년이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내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월 3일, 주민 이익 공유의 현장 전라남도 신안으로!

광주에서 일찍 목포로 넘어가서 목포에서 또다시 신안으로 바삐 움직였어요! 시골 길이라 길 상태가 좋지 않아 자칫하면 멀미할 뻔했지만 그래도 맑은 공기와 반짝이는 신안 바다는 지친 마음에 힐링이 되었습니다~ 신안의 첫 인터뷰 대상은 김정대 안좌도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장님과 김현태 신안군청 경제에너지과 태양광 담당 주무관 님이었습니다!

신안의 많은 섬들 중 특히 안좌도를 방문한 이유는 올해 4월부터 주민에게 실질적인 수익 분배가 이루어 질 예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지금 합의에 이르기까지 협동조합장님의 고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신안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더 합의 과정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안좌도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안좌 스마트팜 앤 솔라시티를 방문했습니다. 먼저 현장 소장님께 태양광 설치 과정과 규모에 관해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직접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장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매우 거대했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큰 규모의 태양광은 처음이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본 태양광 설비는 96MW 규모였는데 올해 안에 이 규모의 두배에 해당하는 204MW 가 설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ESS도 실물영접을 했습니다. 현장 근처에 설치 되어 잉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오후 5시 이후로 ESS를 이용한 수익이 발생하는 형태였어요. 화재 발생을 막기 위해서 온도, 습도 관리도 철저히 하고 계셨습니다!!

안좌도 태양광 현장 방문은 전체 현장답사를 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2월 4일 서울, ROOTENERGY

아침 일찍 저희는 목포에서 서울로 ktx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두개의 일정이 시간이 겹치는 바람에 두 명씩 흩어져서 인터뷰를 진행하여야 했습니다.

저는 루트에너지 윤태환 대표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루트에너지는 국내 최고의 재생에너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데, 루트에너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솔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최근에 진행한 "가덕산 풍력 사업"의 경우 투자 주체가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루트에너지에서 이러한 한계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셔서 크라우드펀딩 업무뿐만 아니라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IT 기술도 꾸준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재생에너지도 **양질 전환의 법칙**을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양적인 변화가 축적되면 질적으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에는 진행하기 힘들더라도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쌓여서 어느 한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 질적인 변화는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양적인 축적을 루트에너지가 주도하고자 하고 우리 같은 청년들이 이를 잘 뒷받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대표님의 진심어린 조언도 새겨들을 수 있었습니다.

2월 4일 현장답사의 마지막 여정은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프런티어의 마지막 여정은 경기도 안산시였습니다. 서울에서 안산으로 향하는 거리가 꽤 멀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장답사 마지막 날이라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일의 현장답사를 하면서 협동조합의 한계점을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었던 터라 협동 조합 중에서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햇빛발전 협동조합도 마찬가지로 부지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하셨고, 수익성이 필수로 나

야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사업무고 함께 진행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안산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은 2030년 10조 매출과 함께 300만의 조합원을 모으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광주 → 신안 → 서울 → 안산" 으로 향했던 다소 빡빡했던 저희의 현장답사 일정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파릇파릇 했던 첫 날 사진과 부수수한 마지막날 사진을 비교해 보시면 저희 팀의 고민의 흔적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ㅎㅎ 하지만 힘들었던 만큼 값진 경험들을 얻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함께 고생한 팀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남은 기간동안 최고의 솔루션을 도출하기 위해 조금만 더 고생하도록 합시다~!